

NATURE & LIFE-SCIENCE IS THE FUTURE OF

비즈니스넷보기
(주)우진 B&G



WOOGENE

최고의 발효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탄탄한 R&D를 바탕으로
해외시장도 거침없이 하이킥

» [취재] 현시영

우진 B&G (주)

▲ 강석진 대표



오는 11월 4일은 우진 B&G가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7년 과학축산으로 창립해, 동물 의약품 생산에 주력하며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렸고, 현재는 우진 B&G만의 독특한 기술력으로 바이오, 신소재, 제약사업을 포함해 대체의약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30년 세월의 관록이 묻어나는 우진 B&G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소개한다.



투자는 곧 경쟁력
업계가 주목하는 지속적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1977년 창립한 우진 B&G(주) (대표 강석진)는 동종업계 중에서 가장 방대한 발효설비를 갖춘 기업으로 유명하다. 창립 당시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벨기에 등지에서 기술제휴를 맺어 제품생산을 했고, 1994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강석진 대표는 당시 R&D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했지만,

IMF로 인해 한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꾸준한 연구와 시설투자로 인해 현재는 다른 업체들도 부러워하는 대규모 발효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었다.

발효설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강석진 대표와 함께 중앙연구소와 공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다. 연구소, 품질관리부와 생산

부서에서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품질관리부의 한 직원은 한번 가동하는 데만 수 천만원이 든다는 발효시설에 이어 다른 기계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동종업계에서 이만한 시설투자를 하고 꾸준한 성장과정에 있는 업체는 오직 우진 B&G뿐이라며 자랑스러워 했다.

강석진 대표는 동물용 의약품의 내수시장 성장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원료 의약품 생산허가를 지난 10월 2일 날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고추역병과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미생물 비료를 개발해 성적이 아주 좋다고 말하며 지금 특허와 함께 미생물 비료생산을 위한 허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석진 대표는 “현재 축산업계가 모두 어렵습니다.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진은 3년 연속 10%의 성장을 했죠. 투자가 그만큼 중요한 성장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진 B&G는 현재 코스닥 상장도 준비 중에 있다.

창의력 갖춘 인재와 두터운 신뢰는 30년 성장의 원동력

우진B&G의 사훈은 '스스로 행동하고, 날마다 혁신하며, 다함께 번영하자.'이다.

강석진 대표는 "스스로 일하고 창조하는 사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지만 실수도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나름대로의 경영철학을 전했다.

강 대표의 노하우는 다름 아닌 신뢰. 매사에 간섭하면 일의 속도가 더디고 책임감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강 대표는 직원들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다.

회사는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격 수준에 따라 성장한다고 말하며 직원의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다움을 강조했다. 직원들의 인간성과 자기 가치를 창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부서 별로 두어 달에 한 번씩 책을 주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대표의 책장에는 직원들에게 전해졌던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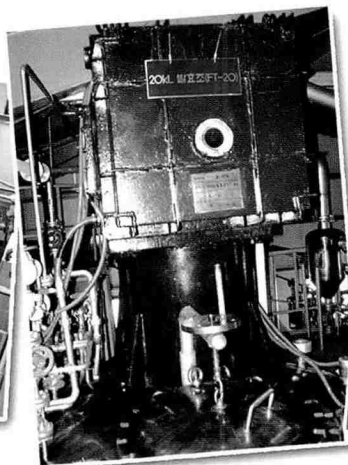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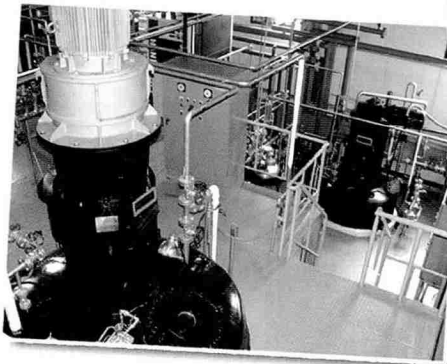
연구소와 공장 방문 시 마주치는 직원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직원들에 대한 넘치는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 연구소, 품질관리부 직원들과 함께



만병통치약은 없다 제대로 된 제품만을 생산

현재 우진 B&G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80여 가지로 주로 사료업체와 전국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강석진 대표는 농가가 여러 제품



▲ 우진 B&G의 자부심, 발효설비

을 써보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제품이 우진의 제품이라고 전하며 가격이 다소 비싸 양측가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제품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차 연구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우진B&G는 몇 년전, B&G HERB 추출공법(특허출원)을 개발했다. 이것은 식물에 함유한 물질을 최대한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법으로 생약추출물을 생산하는 신소재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대표는 “지금 축산에서 생균제 사업은 과도기입니다. 점차 항생제 사용이 감축되어가는 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환경개선제나 항생제 대체제가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제품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된 국가기관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적절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회사에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침을 놓았다. 가축의 질병에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보조사료의 품질관리나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제조자의 양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정도경영을 중시하고 더불어 가치를 창조하는 따뜻한 회사라는 기업문화의 모토가 단지 이름뿐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강석진 대표는 우진 B&G는 그동안 고객에게 믿음을 주기위해 꾸준히 한길만을 걸어왔다고 자부심 있게 말했다. 내수시장 성공에 힘입어 점차 해외로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우진 B&G에서 생산되는 동물약품은 중국, 대만, 칠레, 파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올해 창립 30년을 맞는 우진 B&G.

앞으로의 30년은 훨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회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